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보건의 미래지향적 역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권혁면

1929년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인해 미국의 실업률은 29.4%로 증가하였고 가계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장들이 폐업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집권과 동시에 시작된 뉴딜정책과 포드주의(Fordism), 테일러주의(Taylorism)적 노동편성원리에 의해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이루게 된다. 다만 컨베이어벨트로 대표되는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노동의 단조로움 및 파편화, 업무강도의 강화, 노동의 표준화에 따른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노동의 비인간화와 같은 내적인 한계와 오일쇼크와 같은 외적 자극으로 인해 붕괴하게 된다. 노동의 인간 소외 현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기계에 의해 지배되는 피동적인 존재로 전락함에 따라서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노동의 인간화에 대한 시책들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직무 확대,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확산이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추진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풍토에 있어 과거 대표적인 인간소외적인 현상으로는 장시간 노동과 일과 삶의 부조화, 저임금 등이 있었다면 현재와 미래에는 감정노동, 스트레스, 고용유연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감정노동자의 인간소외적 현상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호실드(A.R. Hochschild)에 의하면

감정노동이란 소비자들이 우호적이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외모와 표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감정을 관리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고용과 생산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됨에 따라 기계를 이용한 직무 보다는 사람을 대면하는 직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의 폭언과 폭력 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로는 수면장애를 비롯하여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 스트레스로 인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27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53명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의 경우는 위험인자에 대한 규명과 업무관련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산재판정을 받은 재해자수는 적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감정노동자는 약 34%이며 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업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업종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사람을 대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문제일 것이다. 비감정노동자의 경우는 약 24.7%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감정노동자의 경우는 약 47.5%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 비상용근로자의 인간소외적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고용형태 및 업무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등 고용 유연화가 되고 있다. 고용 유연화의 의미는 전형적이지 않은 고용의 형태, 불완전고용이나 비상용직 고용의 증가, 시간제 근로의 증가이며 반대로 표준화된 전일제 근로의 감소를 의미한다.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불안감이 업무 수행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심리적인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상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공정치 못한 대우, 업무의 자율성과 회사의 지지가 취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보다 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시행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물리·화학적 위험인자에 대해 비상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문제 역시 더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의 인간소외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는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1999)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양질의(decent) 생산적인(productive)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ILO가 당면한 최우선 목표”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4대 부분 구조개혁 중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확충뿐 아니라 비상용근로자의 격차를 완화하거나 감정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충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인간소외적인 노동은 이미 사회 문제로 발전된 사항들로서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E.N. Lorenz)는 나비효과에서 초기의 아주 작은 조건 차이는 미래의 아주 큰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래 발생 가능한 큰 문제점에 대해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와 노동력 구조가 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미래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산업보건 변화를 논의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산업보건 미래 패널’을 제안하는 바이다. ☺